

1950년대 장덕조의 라디오소설 연구*

—『장미는 슬프다』를 중심으로—

최미진**

1. 서론
2. 라디오 장편소설의 방송환경과 『장미는 슬프다』의 자리
3. 『장미는 슬프다』의 텍스트 내적 특성
 - 3-1. 서사단락 개관과 형식적 특성
 - 3-2. 지배적 담론의 코드화와 탈코드
4. 결론

국문요약

장덕조의 라디오소설 『장미는 슬프다』는 1956년 12월 1일부터 1957년 1월 26일까지 매일 오후 6시 30분부터 45분까지 서울중앙방송국(HLKA)의 <연속소설>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되었다. <연속소설> 프로그램은 1950년대 중반 서울중앙방송국이 종일방송체제로 전환하면서 <연속낭독>류 프로그램의 성공 사례를 충동원하여 신설하였다. 청취율이 높은 시기에 매일 방송된 이 프로그램에 첫 작품으로 창작 소설 『장미는 슬프다』를 내놓게 된 것이다.

『장미는 슬프다』는 라디오소설의 독자적 미학을 갖추지 못했던 당시에 라디오소설의 형식적 특성을 일부 보여주었다. 대사의 사용 빈도가 매우 높다는 점, 방송 매 회당 등장하는 작중인물의 수가 적다는 점, 서사를 주도하고 지배하는 것은 해설자이지만 작중인물과의 구분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정확한 메시지 전달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자 한계이기도 하다.

서사를 추동하는 방식에서 청취자들에게 친숙한 연애소설의 문법과 시의성 있는 사건을 활용한 까닭도 라디오방송의 특성에 따른 것이었다. 이를 통해 ‘자녀 있는 미망인 노백미의 재혼문제’를 집중적으로 담론화하여 1950년대 중반을 살아가던 청취자들에게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인문사회분야: KRF-2007-358-A00085)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교수

‘지금 여가’의 문제를 적절하게 환기시키고 있었다. 미망인이 어머니로서만 삶을 영위해야 하는지 아니면 여성으로서 살아야 하는지를 청취자들에게 묻고 있는 셈이다. 지배 권력이 모성 이데올로기를 강화함으로써 미망인의 재혼불가론을 담론화하였다면, 이 소설은 노백미의 애정갈등을 죽음으로 귀결시키는 방식으로 코드화하였다. 그러나 지배적 코드의 틈새에서 비껴가는 코드들 또한 존재하였다. 노백미의 애정 갈등과정이 서사에 반복적으로 드러나면서 지배적 코드를 끊임없이 미끌어져 나와 틈새를 열어두고 있었으며, 부수적 인물들이 추동하는 협상적 코드는 청취자들에게 미망인의 재혼불가론을 조정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시키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노백미의 죽음을 역설적 생존 전략으로 본다면 숨겨진 저항적 코드를 읽어낼 수도 있었다. (주제어: 장덕조, 『장미는 슬프다』, 라디오소설(라디오 장편소설), 서울중앙방송국(HLKA), <연속소설> 프로그램, 미망인, 재혼, 코드화)

1. 서론

라디오소설¹⁾은 1937년 후반부터 본격화되면서 양적 성장을 이룬 바 있다. 두루 알다시피 장덕조는 일제 말기 네 편의 라디오소설, 즉 「연화촌」, 「우후청천」, 「재생」, 「총후의 꽃」을 발표하였다.²⁾ 이 소설들은 전쟁

1) 라디오소설은 근대적 서사장르인 소설이 전파매체인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예술양식을 일컫는다. 소설의 근대성을 제시형식의 변화, 즉 ‘읽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본다면, 라디오소설은 라디오 매체의 특성상 제시형식의 재변화를 추구한, ‘낭독’을 통해 ‘듣는’ 근대소설이다. 최미진, 「한국 라디오서사의 갈래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 173쪽과 178~179쪽 참조. 그러나 라디오소설이라는 용어는 방송소설보다 익숙하지 않다. 송민경이 밝혔듯 “방송소설은 대동아 전쟁기 사용되기 시작한, 라디오에서 낭독되었던 방송의 소설판이다.” 송민경, 「일제하 방송소설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3, 54쪽. 문제는 방송소설이라는 명명이 광복 이후뿐만 아니라 전파매체인 텔레비전의 출현 이후에도 관습적으로 계속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라디오소설이라는 명명은 일제 말기 이전 시기로 복귀하는 동시에 이론적인 장르명칭으로 전환하는 데 의의가 있다. 라디오소설의 명칭과 장르적 특성은 稿(稿)를 달리하여 다루기로 하겠다.

2) 「연화촌 과 우후청천 은 『방송소설명작선』(조선출판사, 1943)에, 재생 과 총후의 꽃 은 잡지 『방송지우』의 1944년 2월호와 1945년 1월호에 각각 실려 있다. 함태영 해설, 「방송과 친일의 만남」, 『민족문학사연구』 제21호, 민족문학사학

의 후방, ‘총후’의 국민이 갖추어야 할 자세와 바람직한 인간상을 형상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식민지 조선의 여성을 제국의 새로운 주체로 호출하고 있는 이 소설들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일제의 황민화정책에 협력하는 친일문학의 성격을 띤다.³⁾

그러나 라디오 매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제 말기 장덕조의 라디오소설이 당시 황민화정책의 틈새를 보여준다는 최근 연구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양선은 「우후청천」에서 조선부인의 맹목적 모성 비판이 간접화되면서 이면의 진실, 즉 일본이 강조했던 ‘군국의 어머니’ 논리가 조선 현실에서는 제대로 통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환기하고 있다는 점과 「연화춘」에서 하층계급인 구여성을 소환한 것이 구여성으로 하여금 국책 동조를 통해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는 환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⁴⁾ 조 리 또한 「우후청천」에서 미나미 부인에서 김씨 부인으로, 텍스트에서 청취자로 교화되는 과정이 미디어 자체의 특성과 추상화된 인물의 이미지 때문에 일정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교화자의 모방 과정이 왜곡과 변형을 거침으로써 방어적 혹은 역설적 효과를 나타내어 주제를 훼손하고 있으며, 기호적 측면에서도 패러디로 인해 국가적 담론의 엄숙성이 해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청취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제의 통치강령을 선양하기보다 오히려 억제하고 있다고 본다.⁵⁾ 이들 연구는 라디오소설이 지배 권력

회, 2002.; 서재길 해설, 『『방송지우』와 일제말기 방송소설』, 『민족문학사연구』 제22호, 민족문학사학회, 2003.

- 3) 일제 말기 방송소설을 비롯한 장덕조의 문학 활동을 친일문학으로 규정한 대표적 논의는 다음과 같다.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66.; 이선옥, 「여성 해방의 기대와 전쟁 동원의 기대- 여성의 친일작품과 논설」,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역락, 2004.; 심진경, 「여성작가 친일소설 연구」, 『배달말』 제32권, 배달말학회, 2003.; 송민경, 『일제하 방송소설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3.
- 4) 김양선, 「일제말기 여성작가들의 친일담론 연구」, 『어문연구』 제33집 제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271~273쪽.

의 헤게모니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코드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스튜어트 홀이 지적하듯 언론매체의 메시지는 지배 권력과 영향력이 배분된, 특정한 세계관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것은 지배적 코드나 협상적 코드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메시지의 세부적인 면이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도전받는 일이 없다. 결국 언론매체는 세계에 대한 편향적 시각을 나타내고, 그 시각은 지배 집단의 편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그 텍스트가 그들의 설명보다 더 복잡하고, 텍스트와 수용자와의 관계는 훨씬 덜 직접적이다.⁶⁾ 일제 말기 장덕조의 라디오소설은 일제의 황민화정책에 협력하는 지배적 코드를 보여주었지만, 식민지 조선인이 일제의 식민정책을 받아들이는 협상적 코드가 지배적 코드와 세부적인 차이를 보여주며 향유의 간극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⁷⁾ 결국 라디오소설은 라디오매체를 선점한 지배 권력의 헤게모니에 협력한다 하더라도 텍스트 자체와 그 향유방식은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는 셈이다.

장덕조는 광복 후 대표작으로 꼽히는 「합성」을 비롯한 여러 편의 단편과 수필을 선보이지만, 한국전쟁기부터 본격적인 창작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시기 작가는 중군작가이자 『대구매일신문』의 편집국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특히 『대구매일신문』은 단편 「비취」와 장편 『여자 삼십대』, 『여인상』 등 1950년대 가장 많은 작품을 발표한 매체다.⁸⁾ 휴전 후 작가는 발

-
- 5) 조 리, 「장덕조 소설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2007, 92~97쪽.
 - 6) 임영호 편역,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 한나래, 1996, 287~304쪽과 일레인 볼드윈 외, 『문화코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울, 2009, 117~118쪽.
 - 7) 서재길, 「일제 식민지기 라디오방송과 ‘식민지 근대성」, 『사이』 창간호, 국제한국문화학회, 2006, 208~209쪽.
 - 8) 1950년대 장덕조가 『대구매일신문』에 발표한 소설은 단편 「비취(1952. 7.19~8.11)와 장편 『여자 삼십대』(1953.5.25~?), 『여인상』(1954.7.1~11.30), 『만종이 온다』(1958.5.20~10.21), 『역류 속에서』(1960.5.11~12.31)로 총 5편이다. 남금희, 「1950년대 장덕조 신문소설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20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307쪽.

표매체의 확대를 피하면서 대중적인 여성소설가로서의 입지를 굳혔는데,⁹⁾ 라디오소설 또한 이 시기에 와서 창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덕조의 라디오소설은 서울중앙방송국(HLKA)을 중심으로 방송되었으며, 단편소설로는 「소나기」(1956.8.24)와 「태양처럼 뜨겁게」(1958.3.4),¹⁰⁾ 장편소설로는 『장미는 슬프다』가 각각 발표되었다. 이 시기 라디오소설 들은 현재 방송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방송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단지 활자매체로 남겨진 것들만 확인 가능할 뿐이다. 현재 잡지 『방송』에 발표된 단편소설 「소나기」와 「질투」,¹¹⁾ 그리고 단행본으로 발간된 『장미는 슬프다』 세 편만이 확인될 뿐이다.

이 글에서는 『장미는 슬프다』를 대상으로 하여 장덕조의 라디오소설이 지닌 텍스트의 특성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장미는 슬프다』는 장편 양식으로 라디오소설의 대중성을 실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라디오소설의 특성뿐 아니라 1950년대 장덕조 소설의 대중성을 고찰할 수 있는 텍스트라 본다. 연구 대상은 단행본 『장미는 슬프다』이나,¹²⁾ 방송과 단행본 발간 사이의 간극이 짧고 방송횟수와 동일한 회장식 구성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방송 상황을 고찰하는 데 무리가 따르지 않으리라 본다.

9) 1950년대 장덕조의 작품 연혁과 연구 성과는 최미진, 「1950년대 장덕조 소설에 나타나 연애와 결혼」,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7집, 한국문학이론학회, 2009, 139~142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10) 장덕조의 라디오소설 방송 사실은 이 시기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의 ‘오늘의 라디오(라디오 프로그램 안내)’에서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신문들은 주요 방송명만 밝힌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라디오소설의 방송사실뿐 아니라 작가명과 작품명을 온전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연구시기와 매체를 확대할 경우, 작가의 라디오소설 방송은 더 확인될 수 있다.

11) 소나기와 「질투」는 잡지 『방송』에 “방송소설”로 분류되어 게재되어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다른 자리를 빌어 다루도록 하겠다.

12) 연구 대상은 장덕조의 『장미는 슬프다』(희망출판사, 1957)이며, 이하 인용은 쪽수만을 밝히기로 하겠다.

2. 라디오 장편소설의 방송환경과 『장미는 슬프다』의 자리

장덕조의 『장미는 슬프다』는 1956년 12월 1일부터 1957년 1월 26일 까지 서울중앙방송국(HLKA)의 <연속소설> 프로그램을 통해 오후 6시 30분부터 45분까지 총 53회분이 방송되었다. 낭독은 영화배우 최은희가 맡았으며,¹³⁾ 일요일과 공휴일에 상관없이 매일 방송되었다. 이러한 방송 방식은 『장미는 슬프다』가 라디오소설, 특히 장편소설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라디오 장편소설은 단편소설과 달리 긴 기간에 걸쳐 여러 이야기를 청취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까닭에 텍스트 내외적인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여기에서는 텍스트 외적 양상, 그러니까 당시 서울중앙방송국의 라디오소설 방송 상황에 주목하여 라디오 장편소설이 어려운 여건을 어떻게 극복하고 방송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956년 당시 서울중앙방송국의 프로그램에서 라디오소설, 특히 라디오 단편소설의 편성 비중은 적지 않았다. 1954년 기독교방송국이 개국할 당시, 서울중앙방송국에서 라디오 단편소설은 매주 화요일 오후 9시 15분에서 30분까지 <소설낭독>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되다, 1955년 10월 1일 개편 이후 일요일로 요일대가 변경되었다. 1954년에서 1956년 사이 이 프로그램은 정해진 요일에 방송되지 않았는가 하면, 다른 프로그램들, 이를테면 <수필낭독>, <시낭독>, <낭독> 시간에 라디오 단편소설이 방송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프로그램을 특성화하고 고정적으로 방송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당시 상황과 맞물려 있다. 서울중앙방송국은 광복기부터 전속작가제도¹⁴⁾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소수의 작가가 많은 프로그

13) 1957년 1월 11부터는 인기성우 남해연이 대신하였다.

14) 이 시기 전속작가제도는 미국 방송을 모방하여 마련되었으며, 프로그램 편성과에 소속되어 있었다. 당시 전속작가로는 김성민, 유호, 김희창, 이익 등이며, 후에 한운사, 최요인이 가입하였다. 한국방송공사 엮음, 『한국방송사』, 한국방송공사, 1977, 177쪽.

램을 담당해야 했고, 외부 작가들의 왕래가 수월했다 하더라도 그들 또한 소설가와 무대극작가를 겸업하고 있으며 원고료도 적어 작품을 얻기 어려웠다. 때문에 당시 라디오소설의 방송은 작품의 확보 상황에 따라 변화가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도 이 시기 라디오 단편소설은 낭독류 프로그램에 국한되지 않고 특정 청취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 <이북동포에게 보내는 시간>, <민경의 밤>, <농민의 시간> 등에 부정기적으로 방송되었다. 이처럼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꾸준하게 방송되었던 것으로 보아 라디오 단편소설의 비중이 결코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 단속적인 라디오 단편소설 방송과 달리 <연속낭독>류 프로그램은 간헐적으로 편성되었을 뿐이다. 다르게 말하면 라디오 장편소설의 방송은 보편화되지 못하였다. 두루 알다시피 <연속낭독>은 광복기에 시험적으로 운영되어 청취자들에게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연속낭독>은 어린이 연속극 『뽕뽕이의 모험』¹⁵⁾에 자극받아 신설된 프로그램으로, 첫 작품은 뒤마의 『몬테크리스토백작』을 번안한 김내성의 『진주탑』이다. 당시 『진주탑』의 성공은 라디오방송에서 장편소설이 인기를 끌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본보기가 되었다.¹⁶⁾ 이에 힘입어 기획된 작품이 박종화의 『다정불심』¹⁷⁾으로 1947년 4월부터 방송되어 청취자의 관심을 모

15) 어린이 연속극 『뽕뽕이의 모험』은 1946년 미군 고문관 미스브라운이 창안한 프로그램으로 격일로 방송되었다. 이 작품은 『툼소어의 모험』을 번역·각색한 것으로 미국인 랜돌프의 뒤를 이어 김영수와 유효를 비롯한 여러 작가들이 집필하였으며 연 3백회로써 막을 내렸다. 한국방송공사 엮음, 『한국방송사』, 한국방송공사, 1977, 176쪽.

16) 김내성의 번안소설 『진주탑』은 라디오 연속극으로 각색하여 서울중앙방송국에서 1958년 7월 14일부터 9월 27일까지 다시 방송되었다. 각색은 임희재가 했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8시 40분 혹은 7시 40분부터 20분간 방송되었다. 1958년 『서울신문』 ‘오늘의 라디오’ 참조.

17) 박종화의 『다정불심』은 1940년 11월 11일부터 『매일신보』에 연재되고 1942년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이 소설이 <연속낭독>을 통해 라디오 방송되었다

았다.¹⁸⁾

하지만 한국전쟁 후 복귀한 서울중앙방송국에서 <연속낭독> 프로그램은 한동안 자취를 찾아볼 수 없다가 1954년 9월 6일 다시 등장한다. 이때 이승만이 쓰고 박마리아가 번역한 『일본내막기』¹⁹⁾가 10월 28일까지 매일 6시 30분부터 15분간 방송되었다. 이는 라디오소설이 아니었으나 <연속낭독>이 청취율 높은 프라임 시간대에 편성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 상관없이 매일 방송된 첫 사례로 보인다.²⁰⁾ 다시 <연속낭독>이 등장한 것은 1955년에 이르러서다. 이때 프로그램명은 <연속소설낭독>이었으며, 작품은 최인옥의 『바다의 왕자』다. 이 소설은 1955년 3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9시 15분부터 15분간 방송되었으며, 동년 7월부터 잡지 『야담』에 연재되었다. 그러니까 『바다의 왕자』는 다른 매체에 발표된 소설을 라디오를 통해 낭독된 것이 아니라 라디오방송을 위해 창작된 라디오 장편소설인 셈이다.

이러한 <연속낭독>류 프로그램이 서울중앙방송국에서 시험되고 있었을 즈음, 기독교방송국 또한 <연속소설>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연속소설>은 1955년 5월 15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10시 45분부터 15분간 방송하였다. 헤밍웨이의 『바다와 노인』을 필두로 헤스 바스트캣트의

는 것은 당시 라디오소설의 창작이 드물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소설을 단지 라디오로 낭독하는 방송 관행이 여전하였음을 보여준다.

18) 한국방송공사 엮음, 『한국방송사』, 한국방송공사, 1977, 179쪽.

19) 『일본내막기』는 이승만이 1941년 7월 미국 워싱턴에서 펴낸 “Japan Inside Out: the challenge of today”를 박마리아가 번역하여 1954년 자유당선전부에서 출간하였다. 이 책은 이승만이 ‘새로운 질서’라는 명분으로 영토 확장에 광분하던 일제 군국주의자들의 심리상태와 야만적인 침탈 행위를 당시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집필되었다. 특히 일제가 장차 미국을 침략할 것을 이승만이 예견한 책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 『일본내막기』의 <연속낭독>은 1954년 11월 20일 대통령의 중립 제한을 폐지하는 개헌을 앞두고 방송되었다는 점에서 청취자의 흥미 진작보다 이승만의 정치적 행보를 정당화하는 산물로 여겨진다. 당시 국영체제인 서울중앙방송국이 정치적 홍보 전략의 도구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제시카』, 프랑크 스타우더의 『갈릴리 사람들』, 파금의 『대지의 비극』 등이 이어졌다. 이는 모두 외국의 장편소설을 번역한 작품으로, 라디오 장편소설의 창작과 개척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런데도 서울중앙방송국과 달리 단속적이지 않고 꾸준하게 방송되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서울중앙방송국은 기독교방송국의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방식에 자극 받아 1956년 유사한 신설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2월 10일 <명작낭독>²¹⁾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인기성우 장민호의 낭독으로 『삼국지』를 방송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일요일과 공휴일 없이 매일 오전 8시 15분부터 9시까지 방송하였는데, 『진주탑』이 그러했듯 라디오방송을 통한 장편소설의 가능성을 재점검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에 10월 1일 프로그램 개편에서 <옛소설낭독>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앞선 <연속낭독>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매일 오후 10시 50분부터 방송하였다.²²⁾ 1956년에 방송된 옛소설은 『춘향전』을 시작으로 『흥부전』, 『사씨남정기』, 『장화홍련전』, 『장끼전』, 『심청전』이다. 이렇듯 <연속낭독>류 프로그램은 양 방송국의 새로운 실험과 경쟁적 구도 속에서 라디오 장편소설에 대한 청취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며 고정 프로그램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었다.

『장미는 슬프다』가 방송된 <연속소설> 프로그램은 1956년 12월 1일

21) <명작낭독>은 1955년 2월 18일 <연속낭독>으로 프로그램명을 변경하였으며, 동년 10월 1일 프로그램 개편과정에서 시간대를 오전 7시 45분에서 8시 5분(혹은 10분)으로 옮겼다. 1956년 『한국일보』 ‘오늘의 라디오’ 참조 그러나 1956년 10월 1일 제1방송 주간 기본 순서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명은 <연속소설>이고 방송시간은 6시 45분부터 7시까지로 되어 있다. 『방송』 제1권 2호, 1956년 10월호 참조

22) 1956년 10월 1일 제1방송 주간 기본 순서에 따르면 <옛소설낭독>은 프로그램명이 <연속소설>이고 방송시간이 오후 10시 15분부터 20분까지로 되어 있다. 그러나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을 소개한 당시 신문자료들은 프로그램명과 방송시간이 다르게 드러난다.

서울중앙방송국이 단행한 프로그램 개편에서 신설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방송국이 중일방송체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²³⁾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여기에 이전의 <연속낭독> 류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사례를 총동원하는 의욕적인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방송시간을 청취율이 높은 프라임 시간대에 설정하였다는 점, 매일 방송으로 청취자들이 이야기 흐름을 연속적으로 파악하도록 했다는 점, 그리고 당대 인기 여배우 최은희가 낭독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더욱이 라디오방송을 위해 개작²⁴⁾하여 첫 선을 보인 창작소설이라는 점은 청취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했던 서울중앙방송국의 숨은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장미는 슬프다』는 서울중앙방송국에서 개설한 <연속소설> 프로그램의 첫 작품으로서 라디오 장편소설에 대한 청취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한다. 그것은 라디오방송이 끝난 두 달 후인 3월 15일 희망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고, 이듬해 박상호 감독이 영화화하는²⁵⁾ 사실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그만큼 『장미는 슬프

23) 서울중앙방송국은 1955년 연희송신소와 1956년 수원송신소 설치로 대출력 송신시설을 갖추게 되자 1956년 10월 1일부터 이중방송을 실시하였고, 동년 12월 1일부터 토요일과 일요일만 중일 방송을 실시하였다. 1957년 6월 1일부터는 평일에도 중일 방송이 실시되었다. 한국방송공사 엮음, 『한국방송사』, 한국방송공사, 1977, 220쪽. 이러한 방송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다양화를 요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라디오소설의 장편양식 실험이 이루어졌다.

24) 『장미는 슬프다』는 1954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구매일신문』에 연재되었던 『여인상(女人像)』을 개작한 소설이다. 남금희, 「1950년대 장덕조 신문소설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20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316쪽.

25) 영화 『장미는 슬프다』는 장덕조의 원작소설을 주동운이 각색하여 태양영화사에서 1958년 5월 22일 개봉하였다. 감독은 박상호이며, 출연 배우는 김동원, 김지미, 한미나, 김승호 등이다. 현재 필름은 남아 있지 않으며, 영화의 줄거리는 대략 다음과 같다. 대그룹 사장인 김동원의 여비서 김지미는 김동원을 짝사랑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인 한미나는 기출한다. 사장 김동원이 우연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고, 김지미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장 부인을 찾아 헤매던 끝에 그녀를 만난다. 그러나 한미나는 김지미를 만나기 싫어 달아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다. 부부가 교통사고로 같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김지미

다』는 당시 대중적 콘텐츠로서 라디오 장편소설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3. 『장미는 슬프다』의 텍스트 내적 특성

3-1. 서사단락 개관과 형식적 특성

장덕조의 『장미는 슬프다』는 젊은 미망인 노백미와 상처(喪妻)한 남성 현 철, 그리고 가난한 여대생 윤옥란이 사랑하면서 겪는 갈등을 전면화한 라디오 장편소설이다. 원작인 신문소설 『여인상』이 상류층 인텔리 기혼자들이 겪는 사랑의 역경을 다루었다면, 『장미는 슬프다』는 미망인의 재혼문제를 둘러싼 애정갈등을 전경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작중인물의 설정방식은 약간의 변화를 보여준다. 『여인상』의 김자경과 『장미는 슬프다』의 노백미는 지적이면서도 성적인 매력을 지닌 여성이자 딸을 하나 둔 어머니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김자경이 남편은 있어도 ‘여승’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비취부인”이라면, 노백미는 미망인으로서 시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수절해야 하는 “백장미부인”이라는 점이 다르다. 여기에서 김자경의 남편 한중대와 노백미의 시아버지 김주국은 모두 버스회사 사장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삶의 중심을 의식주 해결에 두는 가부장적인 남성이다. 그에 반해 여주인공의 연인은 상처한 인물로 은행의 요직에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리고 여주인공의 연적은 모두 가난하지만 젊고 패기 있는 여대생이며, 여주인공은 연적에게 연인을 양보하고 교통사고를 가장한 자살을 선택하고 있다. 이렇듯 『장미는 슬프다』는 여주인공을 미망인으로 설정하고 남편을 대신하는 시아버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원

는 부부를 간호하고 둘을 화해시킨 뒤 그들의 행복을 빌면서 멀리 떠난다.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http://www.kmdb.or.kr>) 참조

작 『여인상』과 크게 다를 뿐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차이점은 『장미는 슬프다』를 불륜소설로 치닫는 위험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법을 갖춘 라디오 장편소설로 조형하고 있다. 『장미는 슬프다』의 텍스트 내적 특성을 고찰하기에 앞서 53회 방송분을 고려한 서사단락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 백미는 목욕까지 하며 외출준비를 했으나, 현철이 전화해 약속을 취소하다.
2. 백미는 약속을 다시 정하는 현철의 전화에 통통거리다.
3. 백미와 현철은 파티에서 최일심의 소개로 만나 가까워지나 백미가 결혼을 거부하다.
4. 현철은 백미와 결별한 후 마음의 병으로 병원에 들렀다가 입원해있던 백미와 재회하다.
5. 밀회를 즐겨왔던 백미는 갈등하고, 일찍 귀가한 주국은 식사하며 서류를 꺼내놓다.
6. 주국이 차사고 서류를 보며 불평하고, 백미는 극장구경을 핑계대고 외출하다.
7. 백미는 낙원장 커피숍에서 현철을 만나 이별을 고하고 나오는 길에 유정란을 소개받다.
8. 백미는 정란의 깨끗한 모습에 감동하고 택시를 같이 탔던 현철을 내리게 하다.
9. 백미는 아슬아슬하게 귀가한 이튿날부터 집안에서 애리만 보살피나 갈등을 겪다.
10. 현철은 커피숍에서 그리움을 달래던 중 정란에게 시계를 돌려받고 술을 마시다.
11. 현철은 정란의 권유로 술대신 새로운 체험대상으로 그녀의 집에 초대받다.
12. 정란의 집으로 가는 길에 현철은 그녀의 처지를 듣고 위로받자, 자동차를 타고 혼자 가버리다.
13. 귀가한 정란은 심 상사 부친의 보상금 문제를 들으면서도 현철 때문에 싱숭생숭하다.
14. 이튿날 정란은 남매, 심 상사와 식사하다 이문규를 맞이하다.
15. 안 전무는 주국에게 버스 수출 건을 의논하고, 곧이어 버스 내 출산소식을

전하다.

16. 안 전무는 주국에게 옥란을 비서로 쓰라고 청해 허락받고 이를 옥란에게 전하다.
17. 옥란은 안전무의 비서 제의를 거절하고, 이 시간 정란은 취직 부탁 차 현철을 찾아가다.
18. 현철은 정란에게 부산지점장 발령 소식을 알리고, 백미에게 편지를 전해 달라 부탁하다.
19. 정란은 취직 부탁도 못하고 귀가해 일찍 퇴근한 옥란에게 편지 건을 부탁하다.
20. 정란은 현철의 편지를 받은 사흘 후 옥란에게 전하고, 옥란은 사장 덕이라 의아해하다.
21. 옥란은 개에 봉변당해 편지를 찢어버리고, 뒤늦게 나온 백미는 이상하게 여기다.
22. 백미는 늦게 귀가한 주국에게 용지문제를 들고 자신이 애써보겠다 하다.
23. 백미는 주국에게서 현철의 발령 소식을 듣고, 다음날 백미는 일심을 찾아가다.
24. 백미는 일심에게 용지를 부탁하고, 일심이 배운 손님이 현철임을 알고 뛰어나가다.
25. 백미가 이별을 실감하던 그때, 옥란은 언니오빠의 학비 때문에 안 전무를 찾아가다.
26. 옥란은 안 전무에게 월급선불을 거절당하고, 손님이던 이문규가 그녀를 알아보다.
27. 이문규는 옥란에게 학비조달을 장담하나, 돈도 구하지 못하고 김주국도 만나지 못하다.
28. 이문규가 백미를 만나 심 상사 사정을 얘기하자, 그녀가 봉투를 건네다.
29. 이문규는 백미가 준 수표가 백만 환이라 놀라고, 거기에서 십만 환을 옥란에게 주다.
30. 이문규는 정란이 근무하는 낙양장을 배회하고, 백미는 주국에게 인정받으나 허허롭다.

31. 백미는 주국과 영화 『모정』을 보고 귀가 길에 같이 있는 정란과 이문규를 발견하다.
32. 백미는 그들을 스쳐 지나가고, 이문규는 과거에 출장 왔다 정란이 한 저녁을 먹다.
33. 이문규는 우역곡절 끝에 정란과 음악회에 가고, 정란은 거기에서 이문규를 다시 보다.
34. 그날 약속한 영화를 본 이후 정란은 이문규에게 끌리면서도 현철을 떠올리다.
35. 부산에서 식모와 지내다 모임에 다녀온 날 저녁, 현철은 발길로 걷어차는 소리에 깨다.
36. 현철은 강도 요구대로 하나 잠깐 식모의 소란에 권총이 발사된 후 병원에서 깨어나다.
37. 현철은 식모에 대한 미안함과 백미에 대한 그리움으로 치료를 거부해 회복이 늦다.
38. 현철은 백미를 갈망하며 자책하던 중 그녀가 나타나자 놀라 키스를 퍼붓고 울다.
39. 현철은 백미가 함께 하겠다 하자 서로만 사랑하기로 하고 키스하다.
40. 현철과 백미가 서로 열중하던 즈음, 정란은 이문규의 도움을 받으나 간격을 두다.
41. 정란은 현철의 소식을 듣고 부산행을 서두르다 옥란에게 들키다.
42. 정란이 옥란의 제지에도 부산에 가자 옥란은 심 상사를 만나 정황을 얘기하다.
43. 옥란은 심 상사와 함께 안 전무를 찾아가 백미가 온천이 아닌 부산에 갔다고 알리다.
44. 안 전무는 옥란에게 정황을 듣고, 사실 확인 후 혼자 수습할 셈으로 전보를 보내다.
45. 안 전무와 옥란이 걱정하던 동안, 정란은 부산에서 현철의 행방을 힘겹게 알아내다.
46. 정란은 예상외로 병실에서 키스신을 보고 나와 발목을 다치고, 백미는 정

란을 알아보다.

47. 백미는 현철에게 정란을 질투했던 일을 얘기하며 불안해하다.
48. 백미가 정란의 부상 소식을 듣고 입원을 권유하는 사이 현철은 그간의 행동을 되새기다.
49. 백미는 정란의 비난을 감내하며 입원시키고 돌아서며 동병상련을 느끼다.
50. 백미는 전보를 받고 고민하다 자살을 결심하고, 현철에게 정란의 정황만 말해준다.
51. 백미는 현철에게 정란을 만나보라 권하고, 목욕 갔다 돌아오는 길에 차에 뛰어들다.
52. 안 전무는 백미의 사체를 확인하고 낙망하고, 정란에게 현철의 약혼자 역할을 부탁하다.
53. 정란은 안 전무 제의를 거절하고 현철을 위로하던 중 빗속에 운구 되는 백미를 보다.

『장미는 슬프다』는 형식적 측면에서 청취자들에게 알기 쉽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를 일부 마련하고 있다.²⁶⁾ 라디오소설이 라디오 매체의 특성상 다른 시각적 혹은 시청각적 매체에 비해 의미 전달이 완벽하지

26) 한국 라디오소설은 청각예술로서 독자적인 미학을 형성·발전시켜 왔다고 보기 힘들다. 광복 이전 라디오소설은 “방송만을 위해서 방송에 맞는 원고를” 쓰는 일조차 거의 없었고, 따라서 “활자로 되어지는 것과 방송으로 나가는 것의 분간이 없었다.” 미군정기 방송을 위해 원고를 쓰는 전속 작가를 두었지만, 라디오소설의 미학을 고려하기 이전에 방송을 위해 창작되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 한국방송공사 엮음, 『한국방송사』, 한국방송공사, 1977, 177~178쪽. 다만 라디오소설을 청탁할 때 “낭독에 알맞아야 한다”는 점에서 순수문학을 고수하지 않는 중견작가를 택했을 뿐이다. 때문에 1950년대 초반까지도 라디오소설의 창작은 “난삽한 수사를 피하고 알아 듣기 쉬운 용어에 유의하는 정도로 족하다”고 간주되었다. 최요안, 「방송문예의 특색」, 『경향신문』, 1951.11.18. 그만큼 라디오소설은 활자매체에 발표된 소설과 다른, 독자적 미학을 고찰하기 쉽지 않다. 이 글에서 필자는 장덕조의 『장미는 슬프다』 한 편에 국한된 라디오 장편소설의 형식적 특성을 도출하고자 했으며, 최소한 『여인상』을 비롯한 다른 매체에 발표된 작가의 소설들에 준해 그것을 “일부”로 간주하였음을 밝혀둔다.

못하거나 애매모호할 가능성이 높은 데 따른 것이다. 이 소설의 형식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이 소설은 대사의 사용 빈도가 매우 높다. 작중인물들 사이의 대화뿐 아니라 작중인물의 내적 독백도 대사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작가가 다른 매체에 발표한 소설에 비해 대사의 빈도가 훨씬 높은 편이다. 특히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을 재현하는 데 묘사나 주석적 논평보다 대사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대사가 1인 낭독의 맛밋함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명의 배우나 성우가 낭독한 소설은 입체낭독에 비해 청취자들에게 지루함을 가져다줄 수 있다. 그러나 이 소설은 한 목소리로 낭독될 수밖에 없는 묘사나 주석적 논평 대신 여러 목소리로 입체감을 줄 수 있는 대사의 사용을 대폭 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대사가 청취자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을 해설자가 일방적으로 설명하거나 논평한다면 청취자들은 라디오매체의 묘미를 느끼기 힘들다. 청취자들은 대사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마음속에서 그 사건이나 상황을 그려볼 수 있게 된다. 더욱이 뒤이은 해설을 통해 자신의 상상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 재미를 더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렇듯 대사의 빈번한 사용은 라디오매체의 특성을 살려내는 동시에 청취자들과 교감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방송 매 회당 등장하는 작중인물의 수가 적다. 2~3명의 작중인물이 등장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4명이 등장하는 것은 17, 31, 32, 40회분 네 번으로, 주요 작중인물의 전환 장면에서 사용되었다. 7회분은 노백미에서 유정란으로, 31회와 32회분은 노백미와 김주국에서 유정란과 이문규로, 그리고 40회분은 현 철과 노백미에서 유정란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는 유정란을 둘러싼 부수적 서사로 전환될 때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리고 작중인물이 여럿 등장하는 경우도 13, 14, 25, 35회

분 네 번이다. 13회와 14회분은 심 상사 부친의 보상금 문제로 유정란의 가족과 심 상사, 이문규 중령이 모여 의논하는 장면, 25회분은 노백미의 고민과 대조적으로 유정란 가족이 학비 마련으로 동분서주하는 장면, 그리고 35회분은 현 철이 부임지 부산에서 모임에 참석하고 그날 저녁 무장 강도가 들어오는 장면이다. 여러 작중인물의 등장은 특정 사건이나 모임을 재현할 때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작중인물이 넷 이상인 경우는 53회 중 여덟 번에 불과하다. 결국 이 소설은 작중인물을 적게 등장시켜 그들의 이야기에 청취자가 집중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통해 청취자들은 서사의 흐름과 상황을 보다 쉽게 간파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사를 주도하고 지배하는 것은 해설자이지만, 작중인물과의 구분을 최소화하고 있다.²⁷⁾ 이 소설에서 해설자는 작중인물과 완전하게 분리되어 서사의 전면에서 나서는 경우가 드물다. 해설자는 방송 매 회당 등장하는 주요 작중인물의 입장에서 서사를 주도하고 해설과 논평을 덧붙인다. 이는 라디오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라디오는 작가 혹은 해설자와 청취자 사이에 말없는 커뮤니케이션의 세계를 만듬으로써 청취자들에게 1:1로 대면할 때와 같은 친근한 효과를 준다.²⁸⁾ 라디오소설의 해설자 또한 메시지 전달 이전에 청취자와의 친근한 관계 형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해설자가 작중인물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거나, 심지어 지배적 위치를 두드러지게 드러낼 경우 청취자들과 친근한 관계

27) 송민경은 방송소설이 형식적인 측면에서 일정하고 리듬감을 가진 간결한 문체와 해설자가 서사를 장악하는 구조라는 특성을 지닌다고 분석한 바 있다. 특히 후자에서 소설 속 주인공의 목소리와 해설자의 해설이 서로 맞물린다고 지적하였다. 송민경, 「일제하 방송소설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3, 11~12쪽. 이에 서재길은 일반소설과 비교했을 때 그것을 방송소설의 독자적 미학으로 보기 힘들다고 반박하였다. 다만 라디오소설의 고유한 형식적 특징으로 30분 안팎의 시간에 낭독 가능해야 한다는 점에서 분량이 짧다는 점, 그리고 낭독에 적합한 문체를 선택해야 한다는 정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서재길, 「한국 근대 방송문에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7, 80쪽.

28) 마살 맥루한, 박정규 옮김, 『미디어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348쪽.

를 형성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기도 전에 청취자들의 반감을 사거나 저항적 독해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작중인물과의 구분을 최소화한 해설자를 통해 청취자들과 손쉽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로써 해설자가 서사를 성공적으로 주도하고 메시지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셈이다.

이상의 형식적 특성들은 『장미는 슬프다』가 한 명의 배우 혹은 성우를 통해 연속 낭독되는 동안 청취자들과 친숙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는 데 조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청각예술인 라디오소설의 연상성을 강화시키는 데 집중되어 있지는 않다. 이는 형식적 측면에서 이 소설의 한계이기도 하다.

3-2. 지배적 담론의 코드화와 탈코드

『장미는 슬프다』에서 서사를 추동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청취자들에게 친숙한 연애소설의 문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 소설은 연애소설의 문법에 준해 노백미, 현 철, 유정란이 겪는 사랑의 갈등과정을 전면화하였다. 그러니까 작중인물의 설정방식, 연애관계의 발전단계, 결말의 처리방식이 연애소설의 공식적인 문법을 따른다. 특히 노백미와 현 철의 애정갈등에 유정란이 개입하고, 유정란의 짝사랑에 이문규가 끼어듦으로써 애정의 삼각관계가 다각화되는 양상을 띤다. 그럼에도 연애소설의 문법은 청취자들이 서사에 친숙하게 접근하여 그 흐름을 쉽게 간파하고 재미를 느끼도록 한다.

다른 하나는 시의성 있는 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작중 인물이나 주요 사건은 당대 논쟁적인 사건들에서 이끌어낸 것들이다. 노백미와 현 철의 애정갈등에 개입되어 있는 미망인의 재혼 문제²⁹⁾를 비롯

29) 한국전쟁 이후 미망인, 특히 전쟁미망인의 문제는 끊임없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특히 연말마다 전쟁미망인 문제를 한국사회의 대표적 사회문제로 거론

하여 중심 서사를 구성하는 교통사고 보상금 문제³⁰⁾, 은행 융자 문제,³¹⁾ 무장 강도 사건³²⁾은 1950년대 중반 한국사회를 달구었던 사건들이다. 뿐만 아니라 부랑자 단속³³⁾이나 댄스교습소 허가문제³⁴⁾와 같이 소설에서

하였지만, 정확한 실태조사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결로 해넘기는 5대 사회문제, 퇴폐한 국민생활·버림받은 전쟁미망인」, 『조선일보』, 1954.12.25, 2면.; 「구호대책이 전무, 30만이 되는 전쟁미망인」, 『조선일보』, 1955.11.3, 3면.; 「미망인 실태조사」, 『조선일보』, 1956.11.20, 3면.; 속수무책인 “송년” 10만을 넘는 전쟁미망인 원호」, 『조선일보』, 1956.12.17, 3면.

- 30) 이 소설에서 교통사고 보상금 문제는 정란의 이웃인 심 상사 부친을 둘러싸고 일어난다. 심 상사 부친은 김주국이 사장으로 있는 흥아버스주식회사의 버스에 치여 사망하였으나 김주국이 이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하지 않아 갈등을 낳았다. 그 문제는 며느리인 노백미가 사건을 대리했던 이문규 중령에게 백 만환의 수표를 건네면서 일단락된다. 이는 1950년대 중반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피해도 심각했던 상황을 문맥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당시 일간지 기사들을 보면 1954년에는 연초에 교통사고 통계를 집계하고 주요 교통사고를 기사화하는 정도였으나, 1955년에 들어서는 한 달 혹은 하루 평균 교통사고 통계를 주요 교통사고와 함께 기사화하기 시작하였다. 때문에 1955년 하반기부터 교통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제도화·일상화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 31) 은행권 융자 문제는 전후 자금의 순환이 순조롭지 못하고 불공정하게 배분되었던 상황을 문맥화한다. 1954년 2월 24일을 기해 융자문제를 은행권에 맡기면서 정부가 한 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융자를 둘러싼 불법성과 불공정 시비는 사회적으로 문제화되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현 철은 C은행의 영업부장으로 기업의 융자를 담당하는 인물이다. 특히 김주국이 사업 확장을 위해 버스 수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융자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현 철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러나 현 철은 부산 지점장으로 발령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노백미가 정부 관료의 아내이자 친구인 최일심에게 청탁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이는 당시 기업의 융자를 둘러싼 사회적 비리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 32) 무장 강도 사건은 전후 열악한 경제상황과 반환되지 않은 무기류 때문에 빈번하게 일어났다. 부산지점장으로 있던 현 철이 사택에서 무장 강도를 당하는 것은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재현한 것이다. 무장 강도 사건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사는 다음과 같다. 무장강도 3명을 체포, 35차의 범행을 자백, 『조선일보』, 1954.9.8, 2면.; 「칼빙 총소지한 4인조 무장강도」, 『동아일보』, 1955.9.30, 3면.; 「도발하는 강도사건 한 달 동안에 67건 발생」, 『조선일보』, 1955.11.6, 3면.; 「무장강도, 열차를 습격, 화물자동차 세대로 3천여만 원어치 절취」, 『조선일보』, 1956.7.3, 3면.
- 33) 부랑자 단속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사회정화 차원에서 1954년 8월부터

단편적으로 다른 사건도 그러한 성격을 띤다. 이 사건들은 청취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지금 여기’의 문제를 공유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러한 서사화 방식은 라디오 장편소설이 청취자들에게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다. 기자 출신에다 신문소설 창작의 경험이 많은 장덕조의 이력이 이 소설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 소설이 텍스트 내적인 측면에서 담론화한 메시지를 어떻게 코드화하는지 살펴보자.

『장미는 슬프다』에서 중심 서사인 노백미와 현 철, 그리고 유정란의 애정갈등은 1950년대 중반 한국사회에 논란거리인 미망인의 재혼문제, 특히 ‘자녀가 있는 미망인의 재혼문제’를 집중적으로 담론화하고 있다. 노백미는 흥아버스주식회사 사장인 시아버지 김주국과 딸 애리와 함께 살아가는 미망인이다. 그녀의 갈등은 상처한 홀아비 현 철을 친구 최일심의 파티에서 만나 연애를 하면서부터다.

『평온한, 그 대신 숨어진 듯 잔잔한 한평생이 그 무엇이라. 순수한 그 대신 불꽃을 튀기며 타오르지 않는 애정에 무슨 가치가 있으랴. 사람이 세상에 나온 이상에 한번 보람 있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도 생각한다.

실시되었다.

- 34) 댄스교습소 허가문제는 1956년 전후 대표적 향락문화인 댄스 열풍을 건전화하려는 정부의 의도와 비판적 사회적 담론 사이에서 댄스홀 허가문제와 함께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다. 댄스홀의 경우 1956년 한 해에 정부의 입장이 허가에서 단속, 그리고 폐지로 급변하였을 만큼 여론은 매우 비판적이었다. 댄스교습소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관련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댄스홀 등 허가」, 『조선일보』, 1956.4.10, 3면 ; 「인하 조치 보류, 댄스홀 문제에 당국 갈팡질팡」, 『조선일보』, 1956.5.3, 3면 ; 「댄스홀 재단속」, 『조선일보』, 1956.5.24, 2면 ; 「교습소 허가 보류, 국무회의, 댄스 문제에 결정」, 『조선일보』, 1956.11.14, 2면 ; 「3·4명의 댄스교습 용납되냐」, 『조선일보』, 1956.11.25, 2면 ; 「댄스홀 폐지」, 『조선일보』, 1956.12.21, 3면.

마치 한 사람의 육체 속에 두 개의 영혼이 깃들어 있더라도 할 듯이 시아버지에 대한 고요한 사랑과 그 남자를 향하는 광분한 애정이 마음 속에 모순된 상극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8~9쪽)

인용문은 미망인 노백미의 내적 갈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녀의 갈등은 “시아버지에 대한 고요한 사랑과 그 남자를 향한 광분한 애정” 사이에 놓여 있다. “시아버지에 대한 고요한 사랑”은 “여자란 두 번 시집을 가서는 안 된다”(8쪽)는 시아버지 김주국의 “도덕관념”이자 당시 미망인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통념을 지키며 사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백장미 부인”이라는 노백미의 별칭처럼 “순수”와 “희생”의 이름으로 추앙받는 미망인의 삶을 의미한다. 반면 현철을 향하는 “광분한 애정”은 여성으로서 삶의 보람과 가치를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지만 사회적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갈등상황은 현 철에게도 전이된다. 현 철은 재혼을 거부하는 그녀를 두고 “요새 세상에 미망인이 결혼 못할 이유가 어데 있는가”(29쪽)라고 분개하면서도 “아직도 미망인 특히 어린애가 있는 미망인은 혼자 사는 것을 찬양해 주는 우리나라”(32쪽)의 사회적 통념에 동의한다. 이렇듯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사회적 통념에 가장 많이 휘둘린다. 이는 그들의 만남을 단속적이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방송 1회에서 10회까지, 24회와 25회, 31회, 38회와 39회, 47회에서 51회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갈등상황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며, 그 과정에서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된다.

중심 서사의 새로운 전환은 현 철이 무장 강도를 당한 후 노백미가 그를 선택하면서부터다. 그녀의 선택은 여성으로서의 삶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하고 그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선택의 과정과 결과에서 그녀는 이전의 갈등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시아버지의 고요한 사랑”에 자족하던 노백미는 “만 사람의 칭찬을 받던 착한 며느리로서 대실

업가의 협조자로서 혹은 좋은 어머니”(266~267쪽)로서 자리매김하지만, 그것을 저버렸을 때 “부질없는 치정에 빠져 허덕이다가 남의 조소와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가련한 여자”(277쪽)라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재회한 현 철과 열정적 키스를 나누는 것은 이에 대한 보상행위일 뿐이다. 그것은 그들의 재혼을 현실화할 수 없는, 순간의 달콤함에 지나지 않는다. 유정란이 병실로 찾아온 방송 47회분부터 그녀의 불안은 현실화되고 결국 또 다른 선택, 교통사고를 가장한 자살을 하고 만다.

노백미의 죽음은 연애소설의 도덕적 결말짓기 방식이자 라디오소설의 지배적 코드화 방식에 따른 결과물이다. 그녀의 자살은 자신의 연애가 초래할 도덕적 비난, 특히 애리의 어머니 역할을 방기한 데 따른 사회적인 비난과 죄의식을 무화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미망인에게 ‘수절’이라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도덕으로 내세워 지배적으로 코드화한 것이다. 이는 미망인의 재혼을 허용하지 않던 당시 사회의 지배적 담론에 동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전후 사회는 전쟁으로 어머니 중심 가족이 증가하면서 가정의 유지라는 책무를 여성이나 어머니의 몫으로 돌린다. 사회적 지위가 불안한 미망인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더욱이 미망인은 자유부인과 마찬가지로 가족의 유지라는 책무를 방기할 “위험한 여성”으로 간주되었다. 때문에 1955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모성 이데올로기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1955년 어머니주간을 마련하고 1956년 어머니날을 전국적인 기념일로 삼았는데,³⁵⁾ 이때 ‘전통여성’ 신사임당을 소환하여 한국적 부덕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미망인에게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함으로써 성적 욕망을 통제하는 한편 자녀양육의 의무를 사회적으로 부여할 수 있었다. 즉 미망인의 연애나 재혼이 어머니의 역할을

35) 「어머니날의 유래」, 『조선일보』, 1955.5.8, 2면과 「“카네손” 가슴에 달고 창경원서 즐거운 하루. 어머니날 주간의 제5일」, 『조선일보』, 1955.5.13, 3면 참조

방기하는 것임을 강조하여 강력한 사회적 통제를 가했던 셈이다.³⁶⁾ 결국 전통여성의 소환은 모성 이데올로기의 강화를 통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결합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작가 또한 이 소설이 발표되기 전 미망인의 “감정문제나 생활 문제나 성욕 문제보다도 그 기본을 모성(母性)의 보호, 모권확립(母權確立)의 입장에 두”³⁷⁾어야 한다고 밝혔듯이, 당시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동의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노백미의 죽음은 연애소설의 예견된 결말에 당대 사회적 문맥과 작가적 입장이 연동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청취자들이 미망인의 연애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당대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확인하고 동의하도록 이끈다.

그러나 『장미는 슬프다』의 묘미는 도덕적 결말이 환기하는 지배적 코드화에 국한된다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청취자들이 라디오 장편소설에 관심을 갖고 즐기는 것은 지배적 코드를 비껴가는 새로운 독법의 가능성에 있다. 그렇다면 이 소설에서 새로운 독법은 어떠한 코드화 방식을 따르는지 역추적 해보자.

우선, 노백미의 연애에서 반복되는 갈등양상은 미망인의 재혼문제에 대한 지배적 코드의 틈새를 열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독해 가능성을 시사한다. 노백미의 연애는 현 철과의 만남과 헤어짐을 거듭하는 과정을 통해 그녀의 갈등을 끊임없이 환기시키고 있다. 그녀는 집안에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어머니이자 며느리이지만 자신의 삶에 회의한다. 집밖에서는 연애를 즐기는 여성이지만 자신의 존재조건을 각인시키며 헤어짐을 반복한다. 집안/집밖, 어머니이자 며느리/연인, 이성/욕망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그녀의 양가적 면모는 전후 미망인의 존재 방식을 보여준다. 여성으로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바람이, 내재화한 지

36) 김은경, 「1950년대 가족론과 여성」,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07, 55~56쪽.

37) 장덕조, 「미망인의 연애문제」, 『여원』 제2권 제3호, 1956.6, 116쪽.

배적 이데올로기에 끊임없이 미끄러지면서도 반복되는 양상을 띤다. 이러한 갈등양상은 청취자들에게 미망인이 며느리나 어머니의 삶에 자족해야 하느냐, 아니면 여성으로서 삶을 회복해야 하느냐 하는 물음을 되풀이해서 던지는 효과를 낳는다. 다르게 말하면 미망인의 재혼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를 되묻는다. 소설의 결말이 지배적 코드를 따르더라도 청취자들에게 그 코드의 틈새들을 크게 열어놓은 셈이다. 특히 청취자가 미망인인 경우 지배적 코드의 틈새를 교란시키면서 저항적 독해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미망인인 자신을 노백미와 동일시하여 그녀의 갈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과정을 통해 미망인의 재혼을 통제하는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에 저항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노백미의 반복된 갈등양상은 미망인의 재혼을 통제하는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틈새를 열어놓고 청취자들의 새로운 독법을 진작시키고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 이 소설은 부수적 인물들, 특히 안상범과 유정란을 통해 협상적 코드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여성편력이 화려한 안상범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재혼을 별개의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적 통념의 지지자다. 다분히 성차별적인 논리다. 그러나 부산행을 숨긴 노백미의 행위를 “공연히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의리를 지키느라 서로 속박”(303쪽)한 결과라 본다. 남녀 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관계가 순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런 점에서 노백미의 재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노백미의 재혼은 김주국의 재혼이 성사된 이후여야 하며, 그때까지 그녀의 연애 사실은 비밀에 붙여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그러니까 노백미의 재혼이 사회적으로 자연스러운 수순인 양 비춰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망인의 재혼에 대해 비판적인 지배적 코드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세부적으로 그 틈새를 공략하는 협상적 코드화 방식인 셈이다.

유정란 또한 노백미의 죽음 이후 당시 미망인의 재혼 불가론에 대한

협상적 코드화 방식을 제안한다.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자꾸 거짓을 꾸밀려고만 하세요?』

『거짓을 안 꾸미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까?』

『다 정당한 비판을 받아야 해요. 이런 문제는 백장미부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젊은 미망인들의 문제야요.』

『그래두 김사장이 알면 큰일나?』

『김사장께서도 알도록 내버려 두세요. 신문에서도 논의되도록 해야 해요. 많은 미망인들의 갈 길이 밝혀질 꺼예요.』(354쪽)

인용문은 노백미의 사후 대책에 대한 안상범과 유정란의 입장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안상범은 노백미의 재혼에 긍정적이었지만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는 당황스러워 한다. 무엇보다 그녀의 연애 사실을 김주국에게 숨기기 위해 전전긍긍한다. 그는 유정란에게 현 철의 약혼자 역할을 부탁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한다. 나아가 노백미의 연애 사실을 김주국 뿐만 아니라 사회에 공개하기를 요구한다. 노백미를 비롯한 미망인의 연애가 사회적으로 “정당한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망인들이 자신의 연애 사실을 가족에게까지 숨기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정당한 비판”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그 극단적인 결과물이 노백미의 죽음인 셈이다. 따라서 미망인의 연애 문제를 사회적으로 담론화하여 “정당한 비판”을 이끌어내자는 제안은 미망인의 재혼 불가능에 대한 협상적 코드라 볼 수 있다. 이렇듯 부수적 인물들을 통해 드러나는 협상적 코드는 지배적인 미망인의 재혼불가능에 대한 틈새를 공략하고 있다. 지배적 코드에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지만 당대 청취자들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게 다가설 수 있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백미의 죽음에 대한 또 다른 시선이 저항적 코드를 함축

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노백미의 죽음은 연인 현 철에 대한 사랑이 진실하고 지극했음을 표현하는 동시에 사랑의 영원성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고양된다. 그녀는 연인과 결합이 초래할 사회적 비난을 피하는方便임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슬쩍 숨기고 사랑의 영원성을 내세우고 있다. 죽음을 통해 그녀는 “구원의 여성상”으로 거듭나며 사랑을 보다 승화시킨다. 그것은 여성 주인공들의 선택이 환기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상적으로 융합하는 성격이 짙다.³⁸⁾ 그만큼 청취자들은 지배적 코드에 암묵적으로 동의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럼에도 “구원의 여성상”으로 거듭난 그녀의 영원한 사랑은 그녀가 죽음을 통해 생존하는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 일종의 역설적인 여성적 생존전략인 것이다.³⁹⁾ 그녀는 미망인의 재혼을 비판하는 지배적 담론 때문에 고통 받았으면서도 동조하거나 방조한다. 현 철을 선택하고서도 자신의 사랑에 당당하지 못했다. 그것은 극단적인 방식인 자살을 선택했을 때만 가능했다. 즉 미망인 노백미는 죽음을 통해서라도 며느리이자 어머니가 아닌 여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하고자 했던 것이다. 결국 노백미의 죽음은 당대 사회에서 자신의 사랑이 소통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지배적 코드에 동의하지만, 죽음을 통해서라도 그 사랑의 완성을 원했다는 점에서는 청취자들에게 저항적 코드를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지배적 코드를 비껴가는 새로운 독법의 가능성은 라디오 소설 텍스트 자체만 보아도 적지 않다. 이 소설은 연애소설의 문법에서 작중인물이 사랑의 열정을 간직하면서도 우연한 사건들 속에서 갈등을 겪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탈코드들은 한

38) 최미진, 1950년대 장덕조 소설에 나타난 연애와 결혼-『다정도 병이런가』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7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9, 145~146쪽.

39) 윤현자, 「생존전략으로서의 여성의 죽음: 공범관계론으로 잉게보르크 바하만 다시 읽기」,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9, 8쪽.

편으로 전후 사회에서 급증한 미망인과 그들의 재혼문제가 모성이데올로기의 강화를 통한 사회적 통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1950년대 중반 미망인이 ‘위험한 여성’으로 이미지화되고 성적 통제가 제도화되고 있었지만, 사회적 통제의 방식을 거스르는 이들도 많았다는 사실을 문맥화하고 있는 것이다. 청취자들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을 만큼 미망인의 연애와 재혼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가 만연해 있었던 셈이다. 이 소설은 지배적 코드의 틈새를 충분히 열어 놓는 방식으로 당대 상황을 문맥화한다. 다른 한편으로 탈코드들은 작가의 유평적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장덕조는 앞선 글에서 자녀가 있는 미망인의 연애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했지만, 자녀가 없는 미망인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자녀 없는 미망인의 연애를 무조건 반대하는 사회 풍조를 비판하면서 특히 미망인의 성문제를 “도덕(道徳)이나 개인의 한 개 견해로 덮어놓고 반대하는 것은 전연 부당한 일”⁴⁰⁾이라 주장한다. 미망인의 성적 욕망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며, 특히 자녀 없는 미망인이 “우수한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연애에 찬성한다. 그녀는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로서의 자격을 얻는 것”⁴¹⁾이며, 그런 점에서 자녀 없는 미망인의 연애는 “종족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본다. 결국 작가의 입장은 당대 지배적인 모성 이데올로기에 동의하지만, 그 틈새에 인간으로서 여성의 존재와 성적 욕망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소설에서 지배적 코드를 끊임없이 흔들고 비껴가는 코드를 생산하는 것은 이러한 작가의 입장과 무관하지 않다. 이상에서 보듯 『장미는 슬프다』에서 미망인 노백미의 연애와 죽음은 당대 미망인의 소망과 한계를 문맥화하면서 청취자들과 함께 호흡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40) 장덕조, 「미망인의 연애문제」, 『여원』 제2권 제3호, 1956.6, 115쪽.

41) 장덕조, 「미망인의 연애문제」, 『여원』 제2권 제3호, 1956.6, 116쪽.

4. 결론

라디오소설 『장미는 슬프다』는 장덕조가 일제 말기 라디오소설 창작의 경험과 1950년대부터 대중소설가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했던 과정의 소산이다. 1950년대 중반 라디오방송은 한국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나 안정된 면모를 찾아가던 사회적 분위기를 일축하듯 새로운 도전과 시도의 연속선상에 있었다. 국영방송국의 독주를 견제할 만한 민간방송국 기독교 방송이 등장했으며, 서울중앙방송국이 종일방송체제로의 전환을 꾀하며 새로운 면모를 갖춰갔던 것이 1950년대 중반이었다. 라디오소설 또한 그러한 방송 상황에 대처해야만 했으며, 라디오 장편소설은 그러한 모색의 산물이다. 『장미는 슬프다』는 프라임 시간대에 <연속소설>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인기 배우의 낭독으로 창작소설을 매일 방송한 서울중앙방송국의 야심찬 시도의 하나였다.

『장미는 슬프다』는 라디오소설의 독자적 미학을 갖추지 못했던 당시 라디오소설의 형식적 특성을 부분적으로 보여주었다. 대사의 빈도를 높여 1인 낭독의 밋밋함을 더는 한편 청취자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려 했다는 점, 매회 등장하는 작중인물의 수를 대폭 줄여 청취자들이 성우의 목소리만으로 작중인물을 분간하기 쉽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서사의 흐름과 상황 파악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 그리고 작중인물과 구분하기 힘든 해설자를 내세워 청취자와 친근한 관계 속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특성들은 라디오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정확한 메시지 전달방식과 관련될 뿐, 연상성을 강화하는 청각 예술적 성격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다.

『장미는 슬프다』에서 서사를 추동하는 방식이 청취자들에게 친숙한 연애소설의 문법과 당대 시의성 있는 사건을 활용한 까닭도 이러한 라디오 방송의 특성에 따른 것이었다. 서사는 ‘자녀 있는 미망인의 재혼문제’를

집중적으로 담론화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노백미의 애정갈등이나 죽음은 1950년대 중반을 살아가던 청취자들에게 ‘지금 여기’에서 논쟁 중이던 미망인의 재혼문제를 적절하게 환기시키고 있었다. 미망인이 여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어머니로서만 삶을 영위해야 하는지를 청취자들에게 묻고 있는 셈이다. 지배 권력은 전통을 소환하여 모성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미망인의 재혼불가론을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로 삼았고, 이 소설은 그것을 청취자들에게 지배적으로 코드화하였다. 그러나 라디오 장편소설의 대중성은 지배적 코드뿐 아니라 그 틈새의 탈코드들 속에도 존재하였다. 노백미의 애정 갈등과정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면서 지배적 코드를 끊임없이 미끄러져 나와 틈새를 교란시키고 있었으며, 부수적 인물들이 추동하는 협상적 코드는 지배적 코드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청취자들에게 그것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청취자들이 노백미의 죽음을 역설적 생존 전략으로 볼 경우, 숨겨진 저항적 코드를 읽어낼 수 있었다. 이렇듯 『장미는 슬프다』는 당대의 지배적 코드를 서사화하면서도 그 틈새에 협상적 코드와 저항적 코드를 내장하고 있었다.

라디오소설의 청취자들이 다양한 성, 연령, 계층에 속한다는 점에서 향유방식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텍스트만으로 볼 때 이 소설은 메시지 전달에 효과적인 형식적 특성과 다양한 코드화 방식을 내장한 라디오 장편소설이었다. 『장미는 슬프다』가 1950년대 대중적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방송의 방식과 텍스트의 특성이 상호 연계된 까닭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장덕조만의, 라디오소설만의 한계는 분명 존재한다. 장덕조의 성기고 비약적인 서사문법이 특히 결말에서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 작중인물의 예외성을 내장한 채 지배 담론을 코드화하고 있다는 점, 신문매체에 익숙한 작가의 소설 작법으로 라디오 장편소설의 독자적 미학을 구축하기에 역부족이었다는 점 등에서 그러하다. 새로운 시도만이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으나, 『장미는 슬프다』 이후 장덕조도 서울 방송국도 라디오 장편소설의 창작과 장르 개척에 미온적이었다. 지금껏 라디오소설이 독자적 장르로 뚜렷하게 자리매김하지 못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간 장덕조 소설과 라디오소설이 연구자들의 관심 밖에 밀려나 있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그러한 가운데 기초사료의 망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만큼 연구자들의 관심과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장덕조, 『장미는 슬프다』, 희망출판사, 1957.
장덕조, 「미망인의 연애문제」, 『여원』 제2권 제3호, 1956.6.
최요안, 「방송문예의 특색」, 『경향신문』, 1951.11.18.
『방송』 제1권 제2호, 1956년 10월호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1954~1957)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http://www.kmdb.or.kr>

2. 논문과 단행본

- 김양선, 「일제말기 여성작가들의 친일담론 연구」, 『어문연구』 제33집 제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257~278쪽.
김은경, 「1950년대 가족론과 여성」,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07.
김종욱, 「한국전쟁과 여성의 존재양상」, 『한국근대문학의 연구』 제5권 제1호, 한국근대문학회, 2004, 229~252쪽.
남금희, 「1950년대 장덕조 신문소설 연구 - 『대구매일신문』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20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305~324쪽.
마살 맥루한, 박정규 옮김, 『미디어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서재길, 「일제 식민지기 라디오방송과 ‘식민지 근대성」, 『사이』 창간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6, 181~214쪽.
서재길, 「한국 근대 방송문예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7.
서재길, 「『방송지우』와 일제말기 방송소설」, 『민족문학사연구』 제22호, 민족문학사학회, 2003, 387~408쪽.
송민경, 「일제하 방송소설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3.
윤현자, 「생존전략으로서의 여성의 죽음: 공범관계론으로 잉게보르크 바하만 다시 읽기」,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9.
이강언·조두섭, 『대구·경북 근대문인 연구』, 태학사, 1999.
이선옥,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역락, 2004.
일레인 볼드윈 외, 『문화코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울, 2009.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66.
임호영 편역,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 한나래, 1996.

- 장은미, 「1950년대 한국 신문의 제도화와 남성의 재공간화 과정」,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2006.
- 조 리, 「장덕조 소설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2007.
- 최미진, 「1950년대 신문소설에 나타난 아프레걸」, 『대중서사연구』 제18호, 대중서사학회, 2007, 119~153쪽.
- 최미진, 「1950년대 장덕조 소설에 나타난 연애와 결혼 - 『다정도 병이런가』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7집, 현대문학이론연구, 2009, 139~163쪽.
- 최미진, 「한국 라디오서사의 갈래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 169~193쪽.
- 한국방송공사 엮음, 『한국방송사』, 한국방송공사, 1977.
- 한명환, 「1950년대 지역신문에 나타난 여성담론 양상연구 - 영남지역 신문소설의 ‘여성주체’ 개념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47호, 어문연구학회, 2005, 397~422쪽.
- 한원영, 『한국현대신문연재소설연구』 하권, 국학자료원, 1999.
- 함태영, 「방송과 친일의 만남」, 『민족문학사연구』 제21호, 민족문학사학회, 2002, 299~313쪽.
- Vincent McInerney, *Writing for Radio, Manchester and New York* ; Manchester UP, 2001.

Abstract

A Study on Jang Deok-jo's Radio Novel in the 1950s

- Focusing on "The Roses are Sad" -

Choi, Mi-jin

This study is aimed at taking a closer look at the background for the creation and the codification mode of the radio novel "The Roses are Sad" written by Jang, Deok-jo. The radio novel of 53 episodes aired every day at 6:30 p.m. for 15 minutes between December 1, 1956 and January 26, 1957 on the <Serial Story> program, and Actress Choi, Eun-hui played reading. Encouraged by the emergence of a new private broadcaster and supported by the initiatives of new broadcasting leadership, the Seoul Central Broadcasting Station first introduced <Serial Novel> Program in the mid-1950s. The first edition of the program "The Roses are Sad" was a prime-time radio show.

Even though radio novels at that time were still incomplete as a stand-alone art, "The Roses are Sad" showed some distinctive radio novel formats. For example, the programs used more speaking lines to add more spices to the one-person reading and to arouse listeners' imagination, reduced the number of characters to help listeners to distinguish characters based only on radio actor's voice and easily follow the flow and situation of the story, and cast a persuasive narrator to familiarize listeners with the messages. Its efforts to convey accurate messages served as both an advantage and a limitation.

The narrative style of this radio novel featured the grammar patterns of romance stories and contemporary incidents of that time, which were very

familiar to listeners. Based on this narrative style, it was trying to make the issue of the remarriage of widows with children a public discourse. Love, conflicts and death of the character Roh, Baek-mi called listeners' attention to the controversial issue of widows' remarriage. Dominant power at that time strengthened motherhood ideology to disallow their remarriage and this novel conveyed this to listeners as a primary code. There were some minor codes as well. The conflicts in Roh Baek-mi's love repeatedly unfolded, leaving room for consideration, and other negotiable codes proposed by supporting characters could be seen as the necessity to change the predominant code. In addition, if listeners embraced Roh, Baek-mi's death as a paradoxical survival tactic, they could find a hidden defiant code. (key words : Jang, Deok-jo, radio novels, "The Roses are Sad", Seoul Central Broadcasting Station, <Serial Story> program, widows, remarriage, encode)

┃ 위 논문은 2009년 11월 01일 투고되었고, 심사를 거쳐 11월 21일 게재가 확정되었음.